

05 고교 과목 별

국어, 등급이 안 오르는 까닭

독서·문학·화작언매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숫자부터	2
02 무엇이 다른가	3
03 둘로 갈라 대응합니다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세 과목 가운데 국어만 고2에서 내려갑니다 — 64.5% → 53.0%
- ◆ 중학교 국어와 수능 국어가 다른 까닭 — **이해력 시험이 아니라 처리 시험**
- ◆ 속도가 문제일 때와 이해가 문제일 때는 처방이 정반대 · 십 분에 가르치는 법
- ◆ 언어와매체를 먼저 채우시라는 까닭 · 영역별로 나눠 보는 점검표

01 · 숫자부터

고2에서 오히려 내려갑니다

「국어는 한국말인데 왜 안 오를까요.」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공부법이 없는 과목」으로 여겨져 가장 늦게 손대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과목**일 수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입니다.

과목	중3	고2	어떻게 움직었나
국어	64.5%	53%	내려갔습니다
영어	60.5%	72.8%	올라갔습니다
수학	49.6%	56.2%	올라갔습니다

세 과목 가운데 국어만 내려갑니다. 중3 64.5%에서 고2 53%로 떨어집니다.

수학과 영어가 올라간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놓은 학생이 빠져서**인 면이 큼니다. 그런데 국어는 **아무도 놓지 않습니다**. 모두가 끝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실제 사정에 가깝습니다 — 그리고 그 숫자가 내려갑니다.

까닭은 **고등학교 국어가 중학교 국어와 다른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보시겠습니다.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6-06-23 발표). 표본 중3·고2 25,992명 / 539개교 (표집평가). 감소 폭의 해석은 저희 판단입니다.

02 · 무엇이 다른가

읽는 것에서 재는 것으로

중학교 국어는 글을 이해했는가를 묻습니다. 고등학교 국어, 특히 수능 국어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처리했는가를 묻습니다. 이해력 시험이 아니라 처리 시험에 가깝습니다.

영역	무엇을 재나	여기서 막히는 학생
독서	처음 보는 낯선 글을 시간 안에 처리	천천히 읽으면 이해하는 학생
문학	정해진 해석의 틀로 읽기	자기 느낌으로 읽는 학생
화법과작문	글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	대개 여기서 시간을 법니다
언어와매체	문법 지식 — 아는가 모르는가	안 외운 학생

「국어는 공부법이 없다」가 틀린 까닭

영역마다 막히는 이유가 다르고 대응도 다릅니다. 그런데 대개 「국어 공부」라는 한 덩어리로 다루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고쳐야 할지 모른 채 문제만 풀니다.

언어와매체는 외우면 오릅니다. 지식 문제입니다. 가장 빨리 오르는 영역입니다. 문학은 틀을 익히면 오릅니다. 작품마다 다르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독서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대개 여기서 등급이 정해집니다.

독서가 안 되는 두 가지 경우

시간이 모자란 경우와 시간을 줘도 안 되는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이 둘을 가르지 않고 문제만 더 푸는 것이 가장 흔한 낭비입니다.

가르는 법은 간단합니다. 틀린 지문을 시간 제한 없이 다시 읽고 풀어 보십시오. 그때 풀리면 속도 문제이고, 안 풀리면 이해 문제입니다. 둘은 처방이 정반대입니다.

이 장의 구분은 저희 수업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시 통계로 뒷받침되는 분류가 아닙니다.

03 · 둘로 갈라 대응합니다

속도인가 이해인가

	속도가 문제일 때	이해가 문제일 때
증상	시간을 주면 풀립니다	시간을 줘도 안 풀립니다
원인	읽는 방식이 안 잡혔습니다	글의 재료 가 부족합니다
할 것	구조를 표시하며 읽는 훈련	배경지식과 어휘 를 늘리는 일
기간	몇 달	더 길니다
문제 양	양이 듭니다	양이 덜 듭니다

맨 아랫줄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문제인 학생에게 문제를 더 풀리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모르는 채로 답만 맞히는 연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문제라면 — 표시하며 읽기

독서 지문은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는 글인지, 대비되는 것이 무엇인지, 조건이 어디에 붙는지. **읽으면서 표시해 두면 문제를 풀 때 되돌아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훈련의 잣대는 「**같은 지문을 다시 볼 때 어디를 볼지 바로 아는가**」입니다. 그게 되면 속도가 붙습니다.

이해가 문제라면 —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아셔야

이 경우 **고3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배경지식과 어휘는 몇 달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현실적인 선택은 둘입니다. 국어에서 **목표 등급을 낮추고 다른 영역으로 최저를 맞추는 것**, 또는 **국어 비중이 작은 자리를 고르는 것**입니다. 앞서 보셨듯 수능최저의 대부분은 **영역을 골라서 썩니다** — **1,844줄이 2개 영역만 봅니다.** 국어를 안 넣고도 맞출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최저 조건). 대응 방법은 저희 판단입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가르는 차례와 점검표

국어는 진단이 절반입니다.

차례	무엇을	어떻게
1	영역별로 점수를 나눠 봅니다	독서·문학·화작·언매 따로
2	가장 많이 잃는 영역을 찾습니다	대개 독서입니다
3	독서가 속도인지 이해인지 가릅니다	시간 없이 다시 풀려 봅니다
4	거기에 맞는 것만 합니다	처방이 정반대입니다
5	언어와매체를 먼저 채웁니다	가장 빨리 오릅니다

5번을 먼저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문법은 외우면 오르는 영역이라 가장 짧은 시간에 점수가 됩니다. 독서를 붙들고 있는 동안 여기서 몇 문제를 확보해 두면 등급이 한 칸 움직이는 일이 있습니다.

국어를 손보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모의고사를 **영역별로 나눠** 채점해 보았는가
- ☐ 어느 영역에서 **가장 많이 잃는지** 아는가
- ☐ 독서에서 **시간이 모자라는가** , **시간을 줘도 안 되는가**
- ☐ 틀린 지문을 **다시 읽어** 보았는가
- ☐ 모르는 **낱말** 을 그때 찾아보는가
- ☐ **문법** 을 한 번이라도 정리해 본 적이 있는가
- ☐ 문학을 **자기 느낌** 으로 읽고 있지 않은가
- ☐ 문제를 **양으로만** 풀고 있지 않은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안 가르고 시작하면 몇 달을 헛되이 씁니다.** 모의고사 한 회로 십 분이면 확인하십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 등급이 안 오를 때 강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흔한 대응이고, 대개 효과가 작습니다.** 국어는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읽는 시간에 늘어납니다. 강의를 하나 더 들으면 읽을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먼저 어느 영역에서 왜 잃는지 가르십시오. 그 진단은 모의고사 한 회면 됩니다.

05 · 자주 묻는 것

국어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책을 많이 읽으면 국어 등급이 오르나요?

길게 보면 도움이 되고, 짧게 보면 잘 안 듣습니다.

수능 국어는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하는 시험입니다. 책을 즐겨 읽는 학생이 천천히 깊게 읽는 습관만 갖고 있으면 오히려 시간에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다만 이해가 문제인 학생에게는 읽기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휘와 배경지식은 다른 방법으로 빨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의 진단이 먼저입니다 — 속도 문제인지 이해 문제인지에 따라 「책을 읽으라」는 조언이 맞는 말이 되기도 하고 시간 낭비가 되기도 합니다.

초등·중등이라면 읽기가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고3이라면 기출 지문으로 읽는 편이 낫습니다.

Q. 국어를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 집중해도 되나요?

수능최저만 보면 가능합니다. 앞서 보신 대로 최저 조건의 대부분이 영역을 골라서 썩니다. 1,844줄이 2개 영역만 봅니다 — 국어를 빼고 셀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다만 둘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정시는 다릅니다. 정시는 대개 모든 영역을 반영합니다. 국어를 놓으면 정시 선이 크게 내려갑니다. 수시만 보고 정하면 안 됩니다.

둘째, 「포기」와 「비중을 줄인다」는 다릅니다. 아예 놓으면 등급이 계속 내려가고, 그러면 고를 수 있는 조합 자체가 줄어듭니다. 4등급을 유지하는 것과 6등급으로 내려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국어는 공부법이 없는 과목이 아니라 영역마다 처방이 다른 과목입니다. 어디서 왜 읽는지부터 가르십시오.

이 자료의 통계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2025)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입니다. 영역별 대응 방법은 저희 수업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며 학생마다 다릅니다. 이 자료는 성적 향상이나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